

| 위원회 동정 |

숙련과 원·하도급 기업 형태로 보는 임금격차

2017 임금연구회 제7차 전체회의 결과 요약

강금봉 전문위원실

2014년도부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는 미래지향적 임금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임금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4기 임금연구회는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실태 분석 및 관련 정책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17년 8월 발족하여 사회학·경제학·경영학 관련 전문가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현재 운영 중이다.

임금연구회는 제7차 전체회의를 2017년 11월 24일에 개최하였다. 이날 반가운 박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는 ‘한국의 스킬과 노동시장 성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교분석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반가운 박사는 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es; 이하 PIAAC)를 통해 같은 스킬 수준이라도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OECD 평균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스킬활용 지수, 전문직 비율, 사업주지원 교육 참여 참여율, 실제 경력, 직무 만족률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대기업에서는 역량 향상에 따른 임금보상이 크게 반영되나, 중소기업에서는 그에 맞는 적절한 임금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즉, 임금격차는 개인의 역량이 충분히 보상되지 못하고, 인적자원 활용과 개발이 낮은 중소기업의 특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음이 제시되었다.

발제 후 토론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일터를 ‘고성과 작업장’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원·하청 시스템의 근본적인 합리화가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이는 공급사슬 전반을 관리하는 대기업의 경영전략에 하청기업의 숙련수요가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이러한 구조개혁이 없이는 교육훈련 확대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숙련이 향상되더라도 근로조건 개선을 기대하기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임금연구회는 제8차 전체회의를 2017년 12월 8일에 개최하였다. 이날 장우현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는 ‘기업규모별 고용과 임금분포: 경제총조사 분위분석을 중심으로’ 주제로 발제하였다.

장우현 박사는 통계청 경제총조사 자료와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료를 연계하여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체의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연간 평균 인당 지급액은 원청 3천9백만원, 하청 2천8백만원, 비하청 2천2백5십만원으로 원청과 하청의 연봉격차는 1,100만원, 하청업체와 비하청 업체의 연봉격차는 550만원의 차이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원청 대기업의 임금 수준이 하청 중소기업체의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 대기업 연봉이 100만 원 높을 때 하청업체 연봉은 단 6,700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대기업 근로자가 하청 사업체 근로자와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지는 않음을 확인하였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2013~2014년 한국기업정보(KIS) 데이터와 국민경제자문회의 조사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원청업체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때 하청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고, 원청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때 하청의 영업이익은 변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가 의도하지 않게 대기업으로 흘러들어 가는 ‘빨대효과*’도 발생하는 것으로도 발표하였다.

* 빨대효과(Straw Effect)는 하청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혜택이 원청 대기업으로 흘러들어 가는 효과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개선’과 효과적인 ‘승강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원가보조, 예산사업, 인력보조, 조달사업, 공정

거래, 조세감면 등의 정책 효율성 강화와 기업 간 원·하청 수직관계를 고려한 중소기업 정책 지원이 필요함이 논의되었다. 이외 원청의 횡포차단을 위한 공정거래 강화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원·하청 기업 노조 간의 연대와 협력 등이 중요함이 제시되었다.

임금연구회 위원 명단

위원장 이인재(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전문가 권현지(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주영(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노민선(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윤수(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진희(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 연구위원), 이정현(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이지만(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전현배(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정진호(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소장), 조동훈(한림대 경제학과 교수)